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pp.29~5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6

소파 방정환의 종교교육사상 -John Dewey와의 대화를 위한 시론-

丁 惠 貞
(동국대학교)

요약

방정환의 교육사상은 한국적 근대교육의 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수운주의에 입각한 아동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유교전통에 대한 비판과 아동해방을 주장하면서 아동의 心身성장의 자연교육과 예술교육의 정신성장을 제시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됨의 바탕을 가져야 되고 이는 자유로운 심신의 활동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새생명의 활동에 의해 새 세상을 제각기 창조한다. 심신의 성장을 가장 올바르게 잘 키우는 것은 자연인데, 자연은 곧 한울님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대하는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시각적, 청각적, 직관적 영상이 인식된다.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자신을 일치시키는데 이 때 어린이는 참생활과 참지혜를 배우며 그러는 중에 몸과 마음이 우쭐우쭐 자란다. 아동이 자연을 통해 심신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전일성의 체험에 있다. 자연교육이 자연과 일체되는 경험에서 한울님의 성장을 지향하듯이 예술교육 또한 한울님의 경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한다. 특히 아동예술 가운데 〈동화〉는 아동 정신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고 最緊한 식물이다. 또한 방정환은 실제교육과 조선혼의 교육을 제시하는데 교육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 시대와 떨어지는 교육, 실제생활과 관계없는 교육은 아무 고마울 것 없는 헛된 노력이라고 방정환은 말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지상천국의 건설로 바꿀 어린 동무를 교육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방정환의 교육사상은 자아의 문제, 심신의 성장과 자연, 종교·예술교육, 아동의 사회화 교육과 사회창조의 측면에서 John Dewey와의 대화가 가능하다.

핵심 주제어: 방정환, 아동해방, 수운주의 아동관, 심신성장, 자연, 예술교육, 존 듀이

I. 서 론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아동교육사상가를 꼽는다면 방정환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일제통치하에서 천도교를 기본 사상으로 하여 조선의 소년교육운동을 주도해 냈다. 그의 교육적 삶은 인내천에 기초한 조선 특유의 아동존중사상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완고한 유교적 규범교육을 탈피하여 수운주의를 바탕으로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그의 신념은 천도교라는 종교적 외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방정환이 천도교문화운동가였다기보다 아동문학가 혹은 어린이의 스승으로만 기억되는 이유가 이를 말해준다.

방정환(1899-1931)은 어려서 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처럼 집에서 한학을 배우며 성장했다. 일곱 살 때 2살 위인 아저씨를 따라 천도교에서 설립한 보성소학교에 놀러갔다가, 교장이 학교에 다니려면 머리를 깎아야 한다는 말에 땀겨머리를 깎고 할아버지에게 피가 나게 종아리를 맞았다. 그가 입학한 당시의 보성소학교 역시 서당과 다를 것은 없었다. 유치반은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 반년반은 계몽편을, 다음 1년간의 초등과에서는 동몽선습을 배우고 초등과 2년급, 3년급, 그리고 또 고등과 3년을 마쳐야 졸업하여 보성전문학교로 진학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굶주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10살 되던 해에 少年立志會를 만들어 토론과 이야기모임을 열었다. 1914년에는 선린상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고 가정형편상 중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책읽기와 글쓰기는 그치지 않았다. 1917년 손병희의 셋째 딸과 결혼하였고 1918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그는 전격적으로 천도교 문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영화잡지 『녹성』, 청년잡지 『신청년』, 그리고 『어린이』, 『별건곤』, 『신여자』, 『혜성』 등의 잡지를 점차 발행하게 된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천도교 소유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찍었는데, 독립선언서 배부시 독립신문 1호도 인쇄하여 같이 배부하였다. 당시 책임자였던 보성전문학교장 윤익선의 체포로 신문이 중단되자 방정환이 지하 독립신문을 계속 발행하다 체포·수감된다. 방정환은 석방된 후 어린이 운동을 결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東洋大學 문화학과에 청강생으로 있으면서¹⁾ 〈아동예술〉과 〈아동문제〉에 전념하게 된다. 이 때 그는 세계명작동화를 틈틈이 읽으면서 『사랑의 선물』이라는 번안동화를 펴내게 되는 계기를 갖는다. 1921년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고 1922년 4월에 조선 최

1) 이와 관련한 방정환의 행적은 “中村 修, 〈方定煥 研究 序說: 東京時代を 中心に〉, 東京: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靑丘學術論集》 14, 1999.3, 101-106쪽, 참조.

초로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제정하였다. 이 해 겨울 김기진(金基鎭)과 함께 박영희(朴英熙)의 추천을 받아 『백조』 동인으로 가입한다. 1923년 3월에는 동경에서 색동회를, 동년 4월에는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소년운동의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의 예우를 허하자.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폐하게 한다.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한다.” 또한 1928년에는 전 세계 20 여 개국 어린이가 참가한 〈세계아동전람회〉를 개최하였고 1930년에는 그가 창간한 잡지 《어린이》 발행부수가 10만에 이르게 된다.²⁾ 1931년 그는 과로로 쓰러져 혼신을 다했던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안경식은 우리의 교육이 두 번의 단절을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통적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넘어 올 때의 단절, 일제하에서 광복 후로 넘어올 때의 단절이 그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흔히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에서 듀이교육이론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그는 방정환의 교육사상을 우리의 자생적 아동중심교육으로 보고 서양의 교육계보가 아닌 소파 방정환에게서 우리의 계승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³⁾ 그러나 한편으로 방정환의 사상적 뿌리는 자생적인 것이지만 서구의 아동교육도 참고하고 있는 만큼⁴⁾ 현재 한국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듀이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자리매김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듀이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그의 교육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유교전통으로부터의 아동해방과 수운주의 아동관

1. 방정환의 유가전통에 대한 비판과 아동해방

방정환은 소년운동을 시작하면서 재래의 전통적 유교윤리의 압박으로부터 아동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조선의 가장 커다란 인륜적 규범은孝에 있었다. 부모에 대한孝가 절대시 되고 자식은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고 가문을 영속시키는 도구

2) 당시 보통학교 조선인 아동수는 전체 600만 가운데 30만 정도이다.

3)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학지사, 1999, 16쪽.

4) 이윤미, 〈소파를 통하여 보는 교육사 :소파 방정환 교육론의 교육사적 의미〉, 《교육비평》 12, 2003 여름호, 274-307쪽, 참조.

적 존재였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가정은 예외 없이 모두 노인중심으로 생활을 끌고 간다. 이는 어린 새사람을 끌어당겨 뒤로 가게 하는 격으로, 가장 늙은이가 호주가 되어 전 가족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는 격이라 방정환은 말한다. 만약 무덤으로 가기 싫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父命을 거역하는 불효자라 하여 온 동네가 결속해 가지고 박해를 가하는데, 明日의 주인을 조선 사람처럼 냉대, 학대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정환은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부르짖으면서 어린이를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쳐다볼 것과 어린이에게 敬語를 쓰되 항상 부드럽게 대할 것을 말했다. “씩을 위로 보내고 뿌리는 일제히 밑으로 가자! 새사람 중심으로 살자. 어린이를 터주로 모시고 정성을 바치자!”, “새로 피어날 새싹이 내리 놀러만 있을 때, 조선의 설움과 아픔은 어느 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갈 것”⁵⁾이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 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 교육을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뻗어 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⁶⁾

우습이 없는 조선의 가정, ... 학교라고 가보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은 부형들의 꾸지람밑에서 어린 뼈가 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 조선소년의 처지입니다. ... 열 살만 넘으면 좋은 머느리 얻기와 좋은 사위얻기만 힘듭니다.⁷⁾

전통적 유교 윤리에서는 君臣, 男女, 長幼, 親子, 老小, 賢愚, 貴賤 등을 설정하여 君, 男, 長, 親, 老, 賢, 貴가 臣, 女, 幼, 子, 小, 愚, 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고⁸⁾ 삼강오륜에 절대위력을 부여한즉 이를 악용한 독소가 세상을 병들게 하였다.⁹⁾ 또한 조선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어린이는 아무 일을 못하기에 식충이라 하여 학대받고, 아이를 놀리면 게을러진다고 하여 일을 시키며, 궁색한 농

5)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 1926.5.

6)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동아일보》, 1923.5.1.

7) 신영철, 〈부형에게 들려드릴 이야기〉, 《어린이》, 1931.9.

8) 김기전, 〈우리의 사회적 성격의 일부를 고찰하여서 동포형제의 자유처단을 촉함〉, 《개벽》 16, 1921.

9) 김기전, 〈장유유서의 말폐〉, 《開闢》 2, 1920.7.

촌가정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노동을 강요당했다.

유소년의 생리적 발육과 심리적 발육을 구속하는 모든 폐해의 교정에 힘쓸 것, 재래의 봉건적 윤리의 압박과 군자식 교양의 전형을 버리고 유소년으로의 순결한 정서와 쾌활한 기상의 함양에 힘쓸 것¹⁰⁾

깃뵈하고, 학대받고, 쓸쓸스럽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¹¹⁾

어린이가 소박한 정서와 쾌활한 기상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조혼 및 과로의 방지가 필요하고, 문자 교양과 평이한 과학 지식의 보급, 그리고 자연과 예술교육이 요구된다고 방정환은 말하면서 서구사회는 아동중심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조선은 아동을 질곡 속으로 몰아넣는 현실임을 대조시킨다.

외국 사람을 보아라. 그들은 완전히 어린이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집도 어린이를 위하여, 음식도 어린이를 위하여, 정원도 어린이 비위를 맞추어서 심지어 산보도 놀이도 어린이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어린이만의 공원이 있고 유원지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이 수없이 나오고, 학교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도 부족하여서 소년단이 있고 영국에서는 왕실의 왕자가 반드시 그 총재가 되는 법이요, 미국에서는 현대통령이 싫어도 총재가 되고 전 대통령도 부총재가 되는 법이요, 일본에서는 그 본부 사무소를 내무성 안에 두고 각각 그 새 생명을 기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¹²⁾

그러나 방정환이 유교전통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하고 외국의 아동중심을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적극적인 서구화의 지향은 아니다. 서구 근대교육을 계몽주의에 바탕하여 아동의 인권과 실물교육의 학습권을 주장한 ‘아동중심의 교육’으로 정의한다면 방정환에 있어서의 아동중심은 아동을 한울님으로 보는 인간이해에서 시작된다. 수운과 해월의 가르침은 어린이가 한울님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한국적 아동중심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아동중심은 개인의 자아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으로 보지만 방정환의 아동중심은 각자의 한울아를 성장시키는데서 형성되는 개인의 다양성을 말한다. 흔히 소파의 교육목적을 서구근대교육처럼 자아실현으로 보기도 한다. 방정환의 ‘저대로의 독특한 삶, 저희끼리의 새 사회 건설’이라는 그의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10) <천도교 유소년부의 활동 요향>, 천도교청년당본부, 《천도교청년당소사》, 1935, 45-46쪽.

11) 방정환, <어린이 동무들께>, 《어린이》, 1924.12.

12) 방정환, <아동문제 강연자료>, 《학생》, 1930.7.

13) 안경식, 앞의 책, 130쪽.

아동 각자의 독특한 삶과 저희끼리의 새 사회건설은 수운주의에 입각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저자 소세키는 서구 근대의 개성지상주의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옛사람은 나를 잊으라고 가르치셨다. 요즘 사람들은 나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니 전혀 다르다. 밤낮 나 자신이라는 의식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한시도 편안할 때가 없다. 언제나 焦熱地獄이다. ... 이에 반하여 동양에서는 예부터 마음의 수양을 해왔다. 그쪽이 옳은 것이다. 개성 발전의 결과 모두가 신경쇠약을 일으켜 수습 곤란에 빠졌을 때, 무위이화한다는 말을 알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¹⁴⁾

시민계급으로 형성된 유럽의 근대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패권적 민족주의를 옹호했다면, 우리의 근대는 외세의 침략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데서 출발한다.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럽의 근대가 인간을 억압하는 전통에 주체적으로 대항하는 새로운 계급의 새것에 대한 감수성과 관계가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근대가 없다.¹⁵⁾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발전을 이루어가는 맥락 속에서 서구의 근대나 근대교육에 해당하는 대응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방정환의 교육사상은 우리의 주체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서구의 교육이론을 수용한 한국적 근대교육의 기점이자 정초이다.

2. 방정환의 수운주의적 아동관

방정환은 천도교소년회(1921) 강령¹⁶⁾을 만들면서 “소년 대중의 수운주의적 교양과 사회생활의 훈련을 기함”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있어서 소년운동은 수운주의적 인내천관에 따른 아동이해와 훈련을 구상한 것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 방정환의 아동관은 천사주의로 불렸다. 이는 부정적 입장에서 〈소박·감상적 동심지상주의〉, 혹은 〈관념주의〉로 비판되는 맥락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이재철, 이오덕 같은 사람들에 의해 민족주의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재철은 소파를 민족주의 문화운동가로 평가했고 이오덕 역시 그의 『시 정신과 유희 정신』에서 “소파의 작품은 다른 이의 작품과 달리 덮어 놓고 동심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민족의 운명에 밀착된 세계에 살면서 혼이 담긴 작품을 썼

14)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루쉰과 소세키》, 서울:소명출판, 2000, 76~77쪽.

15) 이명현 외,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8, 81쪽.

16) 성봉덕,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념〉, 《신인간》 367, 1979.5, 4쪽, 재인용.

다”라고 평했다.¹⁷⁾ 또한 엄희경은 방정환이 그 당시 시대사조인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사회주의자 김찬과의 교분, 그리고 동학의 민중성을 들어 그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말하기도 한다.¹⁸⁾

나 자신이 민중의 일인인 이상 거짓 없는 진실한 나의 요구는 그것이 많은 민중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 비참히 학대받는 민중의 속에서 소수 사람에게나마 피어 일어나는 절실한 필요의 요구의 발로,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새 생은, 이윽고 오랜 지상의 속박에서 해방될 날개를 민중에게 주고, 민중은 그 날개를 펴서 참된 생활을 향하여 날게 되는 것이니, 거기에 비로소 인간 생활의 신국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항상 쉬지 않고 새로 창조되는 신생은 민중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¹⁹⁾

또한 안경식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에 있었고 이 올바른 성장에서 日帝는 방해 요소였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린이 운동이 항일 운동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한다.²⁰⁾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방정환의 천사주의와 아동해방은 동학적 인간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즉 그가 바라보는 아동은 사인여천에 입각한 것으로 곧 ‘인내천의 천사’요, ‘지상천국을 건설할 어린동무’이며 ‘자연의 시인’이다.²¹⁾ 서구 근대가 인간의 사유기능 즉 이성에서 神의 형상을 찾고 이에 절대적 우위를 두었다면²²⁾ 방정환에 있어서 한울님은 곧 어린이이고 어린이에게서 한울님을 보는 것이며 이들을 통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었다.

17)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 아동문학의 제문제》, 창비신서17, 창작과 비평사, 1977, 10쪽.

18) 엄희경, 〈소파 방정환과 사회주의〉, 《아침햇살》, 2000, 봄호.

19) 방정환, 〈작가로서의 포부〉, 《동아일보》, 1922.1.6.

20) 방정환, 《방정환아동문학선》, 서울:앞선책, 기와집문고11, 1996, 12쪽.

21) 방정환,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애를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921.2.

22) 코메니우스는 일찍이 인간은 이성적 요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神으로부터 중요한 세 기능을 물려 받았다고 말했다. 즉 이성, 언어, 손을 소유하고 있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적으로는 그 자신을,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물들을 관찰하고 명상하며, 판단하게 하는 신령한 빛이며... 언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발산하여 스스로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의 지성력에 제시하며, 끝으로 노동은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여 형성하였던 것을 실재로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이다.”(이숙중,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서울:교육과학사, 1996, 149-150쪽). 이는 곧 근대교육의 특징 가운데 과학교육, 노동교육, 언어교육을 포함시키게 되는 요인이 된다.(梅根梧, 심임섭 역, 《근대교육사상비판》, 서울:남녘, 1988, 154-155쪽).

나는 이 새 일에 착수할 때에 더욱 우리 敎중의 많은 어린 동무를 생각한다. 어여쁜 천사, 인내천의 천사, 이육고는 새 세상의 천도교의 새 일꾼으로 지상천국의 건설에 종사할 우리 敎중의 어린 동무로 하여금 애적부터 시인일 적부터 아직 물욕의 마귀가 되기 전부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찬미하게 하고 싶다. 영원한 천사되게 하고 싶다. 늘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이 예술을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련다. 나는 이 일을 적어도 우리의 새 문화 건설에 큰 힘이 될 줄 믿고 남이 안하던 일을 시작한다.²³⁾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해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이다. 이러한 어린이 삶(살림) 자체 그대로가 “한울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는 한울의 계시”²⁴⁾라고 방정환은 말한다. 어린이는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한울의 그림자이다. 거기에는 어른과 같은 욕심도 있지 아니하고 욕심스런 계획도 있지 아니하다. 죄 없고 허물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울나라! 그것이 어린이의 나라’라는 것이다.²⁵⁾

거듭 말해서 이는 소박한 감상적 동심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아동관의 표현이다. 아동에게서 한울의 뜻과 한울의 계시와 인내천의 천사, 한울의 그림자, 한울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잠을 잔다. ...얼굴을 들여다 보라!... 우리가 전부터 생각해 오던 한우님의 얼굴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어느 구석에 먼지만큼이나 더러운 티가 있느냐? 죄많은 세상에 나서 죄를 모르고 더러운 세상에 나서 더러움을 모르고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한울 뜻 고대로의 산 한우님이 아니고 무엇이라. ...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게다가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한우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 나는 지금 성당에 들어간 이상의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스런 한우님, 위엄뿐만의 무서운 한우님이 아니고, 자는 그 얼굴에 예배하고 있다.²⁶⁾

23) 방정환,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를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26, 1921.2

24)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 2-6, 1924.6.

25) 《어린이》, 창간호, 1924.3.

26)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 2-6, 1924.6.

‘어린이는 곧 산 한울님’이기에 그는 어린 한울님에게 예배한다.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한우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을 가져 오는 이가 어린이라고 방정환은 말한다. “어린이는 순 복덩어리다. 어린이는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 간다. 뻗어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또한 한울님이다. 온 인류의 나아짐과 높아짐도 여기 있는 것이다.”²⁷⁾

Ⅲ. 아동의 성장과 교육의 방법

1. 아동의 心身성장과 자연교육

천도교 소년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아동이 지니는 생명의 힘을 중시하고 자신의 한울님 됨을 기르는 것에 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성장이기 때문에 생명자체의 활동에 의해서 성장은 이루어진다. 김병제도 어린이들의 교육은 생명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분일초라도 생명의 성장을 더디게 하지 말라²⁸⁾ 하였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바른 길로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바른 궤도로 인도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슬기로운 어른이 있어서 늘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장래에 좋은 인물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나무의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궁핍한 조선 소년들에게 “큰일을 한 사람은 여러분 어린이 같이 구차하고 세력 없는 사람 중에서 더 많이 났다”²⁹⁾고 격려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생명과 기운을 지켜주고자 했다.

슬기로운 어른이 있어서 늘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장래에 좋은 인물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나무의 이치와 똑같은 것이외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싹돋는 풀이요 잎피려는 나무요 싹트려는 씨가 아니오닛가. 더욱이 여러분은 마르고 잡풀이 엉켜진 속에 들어있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을 북돋고 김매고 거름주고 할 농부 - 다시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할만한 슬기로운 어른까지 없지 아니합니다. ...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큰사람)나 다같이 한 뜻으로 성하게 자라나기를 힘쓰자는 것이외다. 뿌리박은 땅이 아무리 메마를지라도 덮어누르는 잡풀이 아무리 억셀지라도 살겠

27) 위의 글.

28) 秋崗, 〈어린이 교육의 진제〉, 《신인간》, 1941.5.

29) 《어린이》, 1930.1.

다는 마음, 자라겠다는 기운은 빼앗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³⁰⁾

방정환 역시 어린이들이 자유롭고 재미로운 가운데, 저희끼리 기운껏 활활 뛰면서 자라는 거기에 항상 새 세상의 창조가 있다³¹⁾고 말한다. 아동이 갖는 생명의 힘, 성장의 힘을 돌보아 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조선의 학생 기질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앞으로 뻗는 원기가 있어 씩씩하다’는 점에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호소한다.³²⁾ 또한 잡지 《어린이》지의 마지막 장에는 항상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표어를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내걸었다. 방정환은 “어린이의 어림(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이라고 말한다. 어림 자체가 성장의 힘이고 새로움의 요인이다.³³⁾ 방정환은 어린이 성장에 제일 필요한 것으로 기쁨을 꼽는다. “생명은 기쁨이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움직일 때, 조금도 방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몸과, 생각과, 기운이 동시에 커나간다”³⁴⁾고 했다. 어린이에게 있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명이요, 생활의 전부인 까닭이다.³⁵⁾

어린 사람은 기뻐할 때 제일 잘 자라고, 몸이 크고 생각이 크고 기운이 크고 세 가지가 일시에 크는 것이다. 어린 사람이 제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때, 즉 小毫의 방해가 없이 자유로 활동할 수 있는 때, 그때에 어린이는 제일 기뻐한다. 그것은 움직인다(活動)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명이요 생활의 전부인 까닭이다. ... 그런데 꿈적거리리는 것(움직이는 것, 활동)은 사지 육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도 부지런히 꿈적거리리는 것이다. 어린 사람들이 달음질을 하고 씨름을 하고 방문을 두드리고 공을 차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온갖 꿈적거림은 모두 육체를 활동시키는 노력이다. 그런 때 그의 활동을 도와 주어 더욱 부지런히 꿈적거리게 하여 더욱 부지런히 자라게 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생각이 활동하느라고, 아버지는 누가 낳았고,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소, 맨 나중에 한울님은 누가 낳았고 하고 끝까지 캐어 묻는 것이다. 팔은 왜 빨강고 콩은 왜 노랑소 강아지는 왜 신발을 안신고 다니오 하고 묻는 것도 다 속생각이 활동하려는 것이니, 그 활동을 더욱 도와주기 위하여 동화며 동요며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³⁶⁾

30) 김석송, 〈제발로 제길을 건자〉, 《어린이》, 1925.3.

31) 방정환, 《어린이》, 창간호, 1923.

32) 방정환, 〈조선의 학생 기질은 무엇인가〉, 《학생》 1-3, 1929.5.

33)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 4-5, 1926.5.

34) 《어린이》, 1923.3, 1쪽.

35) 위의 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몸과 생각과 기운이 동시에 커나간다는 점이다. 흔히 우리는 인지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단계마다 특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방정환은 동시적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달음질을 하고 씨름을 하고 방문을 두드리고 공을 차는 모든 육체의 성장활동과 아이들이 주위 환경에 대해 물음을 갖는 모든 속생각의 성장활동은 함께 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마음과 몸이 상호 연결 속에서 함께 성장한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됨의 바탕을 가져야 되고 이는 자유로운 심신의 활동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새생명의 활동에 의해 새 세상을 제각기 창조한다. 심신의 성장을 가장 올바르게 잘 키우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은 곧 한울님이기 때문이다.³⁷⁾ 자연을 대하는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시각적, 청각적, 직관적 영상이 인식된다.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자신을 일치시킨다. 이 때 어린이는 참생활과 참지혜를 배우며 그러는 중에 몸과 마음이 우쭐우쭐 자란다. 아동이 자연을 통해 심신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전일성의 체험에 있다. 새가 노래하면 어린이도 노래하고 모든 존재가 나와 일체가 될 때에 환희와 흥미가 깊은 맘속으로부터 온몸 머리끝까지 솟아 나와 흐른다. 그 하나된 전일성의 경험에서 기쁨과 흥미가 땀으로 배어 나오면서 참생활과 참 지혜를 얻게 되고 심신이 우쭐우쭐 자란다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커나온 사람이라야 심신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빈한한 사람, 부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새 짐승, 풀, 나무들이라도 다 같이 사랑하여 같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³⁸⁾

2. 아동의 정신성장과 예술교육

방정환은 전통적 윤리의 억압과 일본 식민교육을 반대하여 윤리와 수신과목을 모두 지양하고 ‘동화’와 ‘동요’ 그리고 ‘그림’을 통한 예술교육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정환은 인내천의 영원한 천사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술을 만들고 예술의 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했다.³⁹⁾ 그는 ‘기존의 학교교육은 기성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찍어내는 것 외에 어떠한 理想도 계획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덮어놓고 아동들에게 현 사회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 일반을 억지로 씌우려는 것은 잘못

36) 방정환, 〈아동문제강연자료〉, 《학생》 2-7, 1930.7.

37) 방정환, 《어린이》 창간호, 1924.3.

38) 이병두, 〈자연의 대학교〉, 《어린이》, 1923.9.

39) 방정환,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를 기르는 부형과 교사에게〉, 《천도교회월보》 126, 1921.2

된 일이라 하였다.⁴⁰⁾ 즉 기존 제도교육과 같이 修身과 算術만 가지고는 안되고 예술교육이 행해져야 완전한 사람, 좋은 사람, 전적 생활을 잘 把持해 갈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⁴¹⁾ 자연교육이 자연과 일체되는 경험에서 한울님의 성장을 지향하듯이 예술교육 또한 한울님의 경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한다. 특히 아동예술 가운데 〈동화〉는 아동 정신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고 最緊한 식물이다. 현대의 아동에게는 그 인간적 생활의 요소로 동화가 요구된다.

동화에 의하여 정의의 계발을 속히 하고, 이지의 판단을 명민히 할 뿐 아니라 허다한 도덕적 요소에 의하여 덕성을 길러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의협심을 풍부케 한다. 또한 각종 초자연·초인류적 요소를 포함한 동화는 종교적 신앙의 기초까지 심어주는 등 실로 그 효력이 위대한 것이다.⁴²⁾

〈동화〉는 결코 교훈만이 목적은 아니다. 아동 자신이 동화를 구하는 것은 지식을 얻거나 수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연의 욕구이다. 영아가 모유를 원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동화를 원한다. 모유가 영아의 생명을 기르는 유일한 먹이인 것과 똑같이 동화는 아동에게 가장 귀중한 정신적인 먹이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과 같은 영원한 아동성을 아동의 세계에서 보전해 가고 또 나아가 세련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⁴³⁾ 동화는 이러한 아동성을 잃지 않은 예술가가 다시 아동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감격과 이상을 동화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빌어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그 깨끗한 그 곱고 맑은 고향-아동의 마음으로 돌아가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의 마음!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동 시대의 마음처럼 자유로 날개를 펴는 것도 없고, 또 순진한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40) 방정환,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천도교회월보》, 1923.3.

41) 방정환,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열면서〉, 《어린이》, 1928.10. (안경식은 소파의 예술운동의 의의를 4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지덕체의 조화가 아닌 지덕미의 조화를 든다. 여기서 미육은 덕육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다. 둘째, 소파의 예술운동은 음악, 미술, 동화, 동극, 사진 등 예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전 영역에 걸친 예술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있다. 셋째, 교육방법상 그의 예술교육은 흥미의 원리와 직관의 원리를 크게 고려했다. 문자에 의한 사고보다 직접 보고 듣고, 행해봄으로써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동화구연과 동요, 동극은 흥미나 활동의 입장에서, 그림이나 사진은 직관의 원리라는 입장에서 좋은 어린이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넷째, 일관된 원리는 ‘자신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레 표현하라’는 것에 있다. 안경식, 앞의 책, 16쪽).

42)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특히 소년 이외의 일반 큰 이에게〉, 《개벽》, 1923.1.

43) 위의 글.

연령이 늘어갈수록 그것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대신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만을 갖는다 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랴, 경험과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요, 지식이 무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늘어간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경험, 그 지식이 느는 동안에 한편으로 그 순결한, 그 깨끗한 감정이 소멸되었다 하면 우리는 어찌랴..... 그 사람은 설사 냉랭한 마르고 언 지식의 소유자일망정 인생으로서는 역시 퇴락한 자일 것이다. 아아, 우리는 때때로 천진난만하던 옛 고향, 아동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의 순결을 빌지 않으면 안 된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아 곱다!’ 하고 이유 없이 달려드는 어린이가 나는 귀여울 뿐 아니라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듯이 생각됩니다.”라고 일본의 동화 작가 고카와 씨는 말하였다. 과연 그렇다. 아동의 세계는 어떻게 해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의 낙원이며, 동시에 그곳은 엿볼 수 없는 숭엄한 비밀의 왕국과 같다.⁴⁴⁾

방정환에 의하면 아동의 세계와 그 아름다운 낙원, 숭엄한 왕국을 인간은 누구나 지나온다. 인생은 어린 날의 낙원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곧 더럽히지 않은 순결과 무한한 자유의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다. 유년 시절의 통합된 세계가 성인들의 마음에 살아남는 것이다. 한울님의 모습, 한울님 마음으로. 현실 생활의 반성도 이상의 향상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젊은 벗의 장래·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랑과 희망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⁴⁵⁾ 그러므로 동화는 결코 소년소녀에게만 읽힐 것이 아니고, 넓고 넓은 인류가 다 같이 읽을 것이며, 작자도 또 항상 대인이 소아에게 주는 동화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지닌 한울님 즉 ‘영원한 아동성’을 위하여 ‘동화’를 쓰는 것이다.⁴⁶⁾

또한 방정환은 〈동요〉를 통해 아동의 세계를 키워나가고자 한다. 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 시와 음악이 담긴 동요에는 진실과 세계가 담겨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남에게 앉지 마라

44) 위의 글.

45) 위의 글.

46) 위의 글. (『어린이』 지에는 修身을 강화하는 교훈담이나 수양담은 넣지 말고 어린이 저희끼리의 소식, 저희끼리의 작문과 담화, 또는 동화, 동요, 소년소설만으로도 훌륭하고, 거기서 어린이는 웃고, 울고, 뛰고, 노래하고 그렇게 커 가면 또한 훌륭하다고 방정환은 말했다. - 방정환, 〈소년의 지도에 관하여〉, 《천도교회월보》, 1923.3. 그리고 동화는 무엇보다 아동에게 愉悅을 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의 특성은 어린이들의 놀이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쁨을 욕구 한다. 그러기에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동화의 생명이다. - 방정환, 〈동화작법〉, 《동아일보》, 1925.1.1).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⁴⁷⁾

아이들은 이러한 고운 노래를 기꺼운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를 때 그들의 고운
넋이 아름답게 우쭐우쭐 자라간다.⁴⁸⁾ 다시 말해서 아들은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
고 질서지우며 옳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확신해 나간다. 위의 노래는 어른들이 지
은 것 일수도 있지만 몇 해, 몇 십년 동안 어린이들의 나라에서 불러 내려서 어린
이 것이 되어 내려온 것이기에 그 노래에 스며진 어린이의 생각, 어린이의 살림,
어린이의 넋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그림〉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그리기를 좋아한다.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 조금의 기교가 없는 순진한 예술을 낳는다.⁴⁹⁾

어른의 상투를 재미있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몸뚱이보다 큰 상투를 그려 놓
는다. 순경의 칼을 이상하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순경보다 더 큰 칼을 그려 놓
는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냐! 얼마나 순진한 예술이냐! 지나간 해 여름이다.
서울 천도교당에서 여섯 살 된 어린이에게 이 집 교당을 그려 보라 한 일이 있
었다. 어린이는 서슴지 않고 종이와 붓을 받아들더니 거침없이 네모 번듯한 사
가 하나를 큼직하게 그려서 나에게 내밀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어린이
는 그 큰 집에 들어앉아서 그 집을 보기를 크고 네모 번듯한 넓은 집이라 밖에
더 달리 복잡하게 보지 아니한 것이었다. 얼마나 순진스럽고 솔직한 표현이냐!

아이들이 한 포기 풀을 그릴 때, 어린 예술가는 연필을 잡고 거리낌없이 쪽쪽
풀포기를 그린다. 그러나 그 한번에 쪽 내리 그은 그 줄이 얼마나 복잡하고 묘하
게 자상한 설명을 주는지 모른다. 여기에는 한울님을 표현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내면의 힘이 숨겨져 있다.⁵⁰⁾

위대한 예술을 품고 있는 어린이여! 어떻게든 이렇게 자유로운 행복만을 갖
추어 가졌느냐. 어린이는 복되다. 어린이는 복되다. 한이 없는 복을 가진 어린
이를 찬미하는 동시에 나는 어린이 나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감사한다.⁵¹⁾

47) 위의 글.

48) 위의 글.

49) 위의 글.

50) 앞의 글.

51) 위의 글.

예술은 오늘날 탈근대적 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예술경험은 진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는 정초적인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혼적 속에서 직관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 특히 언어는 이러한 경험을 매개하는 장소이다. 언어는 사회적 삶의 공적 장소가 되면서 진리의 경험을 제공한다. 진리는 수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논리가 아니다.⁵²⁾ 시적인 언어가 진리의 장소가 되고 그러한 예술은 우리의 지평과 배경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방정환이 강조한 동화·동요, 그림과 같은 아동예술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인간내면을 형성하고 감정이입력을 확대시켜줌으로써 타인과 나의 동일감을 확대시키고 진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3. 신문·잡지를 통한 자가교습과 실제교육

교육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 시대와 떨어지는 교육, 실제생활과 관계없는 교육은 아무 고마울 것 없는 헛된 노력이라고 방정환은 말한다.⁵³⁾ 아동에게 자연과 예술이 필요하듯 실제지식 역시 그는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사회 생활과의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학생 시대의 공부 성적은 학교 안에서 뿐인 일이고 실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새삼스런 실력으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미리 학과 공부하는 여가를 잘 이용하여 실사회, 실생활에 관한 지식을 구하기에 부지런하라고 말한다.⁵⁴⁾ 원래 방정환은 천도교소년회 강령을 만들면서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황국신민화를 위한 제도교육을 탈피하여 사회교육 차원에서 구상되는 교육방법이기도 한 것이었다.⁵⁵⁾ 방정환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제기한 자가교습방법은 날마다 게재되는 신문 기사를 교재로 하는 것이었다. 경제·법률·조합·쟁의 등에서 공산당·무정부주의·재판법·공소·상고, 또는 물건 시세 오르고 내리는 것, 남녀관계, 결혼에 대한 지식, 이 모두가 무한한 교재이면서 실사회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이기에, 직접 자기 생활에 필요한 산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생활과 관계가 적은 문자만 골라 모은 판에 박힌 교과서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첫째, 교사는 어린이에게 신문 기사를 설명해 줄 때, 자신의 아는 표준

52) 잔니 마티모, 박상진 역, 《근대성의 종말》, 서울: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33, 36쪽.

53) 방정환, 〈나의 페이지〉, 《학생》 1-2, 1929.4.

54) 위의 글.

55) 이 당시 천도교 청년당은 6개 부문의 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으로 나갈 것을 선언했다.

에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알아듣도록 설명할 것을 방정환은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동의 자연스런 흥미가 따라져 나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교재가 허황한 생각으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로서 이웃집 또는 이웃 동네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자기 정도에 따라 해득해 가는 것은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하였다.

둘째, 어린이는 밤에 잠자기 전에 그 날 낮에 배운 신문기사의 사실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간단히 적어 두었다가 그 이튿날 반드시 선생에게 보이게 할 것이요, 선생은 그것에 의하여 어제 설명해 준 것을 바로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못하였는가를 검토할 것이며, 만일 그 소감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으면 곧 고쳐 설명하여 줄 것을 말하였다.

셋째, 이렇게 하는 한편으로 시간과 기회를 이용하여 실지 견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는 주장한다. 재판소, 강연회, 전람회, 토론회, 음악회, 어느 단체의 총회, 심지어 경매소, 장터, 어물시장, 신문사, 회사, 미두(美頭)하는 곳, 직업소개소까지라도 기회 있는 대로 실지로 자주 보게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고 온 그날 반드시 소감을 쓰게 하여 그 소감을 읽고 고쳐주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⁵⁶⁾

아동교육은 스스로 어린 사람을 자기 생긴 대로 커 가게 한다 하여 그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재래의 전통이 뿌리박기 전에 제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제가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교련교육에 유의하는 점을 보아서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⁵⁷⁾고 방정환은 말했다.

4. 새 세상의 창조와 조선혼의 교육

방정환이 소년운동을 착수한 것은 새 세상의 새 일꾼으로 지상천국의 건설에 종사할 어린 동무를 교육하고자 함이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아동존중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현실의 전체적 전망 속에서의 아동존중이 들어 있고, 이는 조선현실의 역사적 맥락 위에 놓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민중들 모두가 모순과 불합리, 생존경쟁이란 진흙 속에서 철벽거리고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민중 스스로 해방의 날개를 펴도록 민중과 함께 걸어가하고자 했다.⁵⁸⁾

56) 방정환, 〈딸 있어도 학교에 안 보내겠소〉, 《별건곤》 6-3, 1931.3.

57) 〈어린이날에 하고 심혼말〉, 《개벽》 69, 1926.

58) 방정환, 〈작가로서의 포부, 필연의 요구와 절대의 진실로〉, 《동아일보》, 1922.1.6.

조선 사람은 남에게 뒤떨어진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조선 사람이라면 아무 하잘 것 없는 아무 값없는 몸뚱이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이처럼 손해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결코 못생긴 사람뿐만이 아니요 조선 사람이라고 남에게 뒤떨어지기만 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마는 그와 똑같이 우리들의 자랑, 우리 조선의 자랑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⁵⁹⁾

방정환이 조선을 잘 알도록 힘쓰고 세계를 잘 알도록 힘쓰라 하는 것은 조선과 세계를 위해 자신의 일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잡지 『어린이』의 주된 내용도 조선의 문화를 속속들이 소개하는 것이었다. 동요와 전설에서부터 지리와 역사, 언어, 자랑거리, 발명품 등 전체를 망라하여 조선을 알려주고 조선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조선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에게 있어 조선공부란 조선을 공부하여 조선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의 삶을 보다 크게 만들고 참된 인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한 인간의 시시비비의 행위를 반성하여 옳은 것은 장려하고 그른 것은 제거하여 큰 인물을 이루어 가듯이 조선의 과거와 장단점을 알아 새로운 조선을 이루기 위해 조선공부는 밥과 같은 것이다. 조선의 동요를 노래하고 조선의 자랑과 조선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며 지리적 향취를 뿜어내는 것은 조선아동으로 하여금 조선혼을 먹고 자라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인이 조선어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고 그 언어에는 쉼하는 바람소리와 끼룩하는 학의 울음 등 조선의 정서와 사유가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조선민족으로 산다는 것은 조선사회의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의 억압적 윤리교육과 일제의 식민교육 양자를 모두 부인하고 조선독립의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적 전망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는 조선만을 관계 짓는 것이 아니라 세계일가적 전망 아래서 어린이의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외국 사람의 불행이 곧 우리에게도 영향되고 우리의 기쁨이 외국 사람에게도 곧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 일을 잘 알기에 힘쓰는 동시에 세계 일을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까.”⁶⁰⁾

조선공부는 곧 자기 정신적 성장이요 방향이다. 조선공부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59) 방정환, 〈편집을 마치고〉, 《어린이》, 1929.3.

60) 《어린이독본》, 제9과 세계일가.

이상과 맞닿게 되고 인류로 나가는 하나의 신념으로 포착되게 된다. 이 신념은 한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데 준거가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인내천으로 모아진다. 조기간은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만일에 생명이 있고 보람이 있는 길을 끝까지 잘 가려거든 제각기 제 스스로 속에서 전 인류의 위대와 전 우주의 힘을 찾아내는 그러한 주의요 그러한 사상인 <사람이 곧 한울> 이라는 그 줄을 붙잡기를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빈다”⁶¹⁾고 하였다.

IV. John Dewey와의 대화를 위한 試論

1. 자아의 문제

방정환에게 있어 자아란 한울님을 표현하고 한울님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산물이다. 인간의 본래적 존재는 한울아로서 지칭되는 것이고 개체아를 끊임없이 한울아에 일치시켜 자기중심성을 초월해야 한다. 듀이에게 있어 자아라는 것 역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선택에 의하여 끊임없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 사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시하는 관심의 종류와 양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타내며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⁶²⁾ 그리고 듀이에게 있어 無私心(Unselfishness)으로서 이기심이 없다는 것은 무자아(無我) 즉 자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생기와 인격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듀이식 무사심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활동 범위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 그리고 자아가 그 자신의 과거의 아이디어를 재조정하고 확장하여 거기서 새롭게 드러나는 결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아가 자신과 거리가 먼 또는 무관한 고려 사항들과 담을 쌓고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은 무사심과 반대가 된다. 따라서 듀이에게 있어 모든 행동은 잠재적인 도덕적 행동이다. 왜냐 하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습관의 원리에 의하여 성향에 수정을 가하기 때문이다.⁶³⁾

2. 심신의 성장과 자연

61) 조기간, <엇저면 조흘가>, 《어린이》, 1928.1.

62)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The Free Press, New York, 1944, pp.351-352.(이하 DE로 표기); 존듀이,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1987.

63) DE, pp.352-357.

방정환은 어린이의 어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이라고 말한다. 어른보다 더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밑천을 가졌을망정 결단코 어른들의 주머니속 물건만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듀이는 일찍이 “성장의 으뜸가는 조건은 미성숙”⁶⁴⁾이라 하였다. 그러나 방정환이 의미하는 성장의 어림과 듀이가 말하는 미성숙의 성장은 그 놓여지는 맥락이 다르다. 방정환의 어림은 한울님 자체로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쁨과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형성되는 성장을 의미한다.

방정환에 있어서 자연은 인간과 같은 한울님의 존재이다. 원래 동학에서 인간과 자연의 차이는 자연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한울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의 자연은 듀이처럼 교변작용⁶⁵⁾을 통해 개조되는 정복과 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한울님의 전일성을 공유하는 한 몸이다. 방정환은 아동이 자연과 일체감을 갖을 때 한울님의 성장, 즉 심신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했다.

한편 듀이의 미성숙은 자연과 사회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효율적 행동을 정착시켜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성장을 의미한다. 듀이에 있어 습관은 성장의 표현이다. 능동적 습관에는 새로운 목적에 능력을 적용하는 사고, 창의성, 자발성 등이 수반된다.⁶⁶⁾ 그리고 듀이에게 있어 성장이란 유기체의 행동이 주위 환경과 균형을 취하거나,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활동을 재조정하는 능동적 능력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⁶⁷⁾ 그러나 방정환과 듀

64) DE, p.41.

65) 교변작용에 대해서는 ‘박철홍, 〈경험개념의 재이해: 듀이의 연구에 대한 반성과 교육학적 과제〉, 강영혜 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철학의 최근 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1994, 271-327’, 참조.

66) DE, pp.46-47.

67) DE, p.52.(듀이에게 있어 성장은 곧 경험의 성장인데 듀이의 경험은 고대 희랍의 고전이론과 근대경험론을 비판 종합한 성격이 강하다. 듀이는 17·18세기의 경험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비판한다. 즉 근대 경험론은 희랍의 고전이론에서 보는 경험과 이성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베이컨의 경우와 같이 자연을 앞질러서 자연에다가 순전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을 뒤집어씌우는 관념의 幽囚상태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힘으로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다. 경험의 힘을 빈다는 것은 곧 권위와 결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새로운 인상에 대하여 개방된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데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경험이란 이성의 작용에 기초가 되고 그것을 점검하는 자료를 파악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둘째로, 진리의 기초를 구체적인 사물 또는 자연에서 구하는 수단으로서 경험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마음을 순전히 수동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마음이 수동적이면 수동적일수록 사물은 마음에 더욱 참된 인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는 근대 경험론의 심각한 결함을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근대 경험론은 세계와 정치제도에 관한 당

이 모두 심신일원의 성장을 말하고 있다. 방정환은 아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쁨과 자연과의 일체에서 심신이 우쭐우쭐 자란다고 했고 듀이는 “신체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마음을 발달시킨다”(68)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듀이는 사고가 경험에서 오고 그것이 다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신일원을 말한다. 물론 방정환에게 있어서는 듀이와 같이 경험과 사고의 관계가 방대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지식이 따라져 나옴과 그 축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정환은 단서를 단다. 경험과 지식이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늘어간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경험과 지식이 늘어난 동안에 한편으로 그 순결한, 그 깨끗한 감정이 소멸되었다 하면 그 사람은 냉랭하고 마른 지식의 소유자일망정 인생으로서의 역시 퇴락한 자이다. 따라서 그는 아동의 세계와 같은 마음의 순결을 강조했다.

참고로 당시 같이 활동했던 천도교 백중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본능이 맨 처음엔 오직 자기보존 본능과 종속보존 본능만으로 자연계와 기화를 시작하였지만 거기서 어떤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반복하는 데서 경험은 다시 본능이 되고 본능은 또다시 경험을 낳으며 일면 사람성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일하는 작용을 가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일하는 동시 타인의 경험까지 모방하며 통일하여 사람성 자연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성장시킨다.⁶⁹⁾

사람의 본능이 자연계와 기화를 시작하여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반복하는 데서 경험은 다시 본능이 되고 본능은 또다시 경험을 낳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시의 신념을 깨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교육과 같은 건설적인 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론에서 강조하는 직접적인 인상은 그것이 당사자 자신의 것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활동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서 사물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근대 경험론은 그 내재적인 능동적, 정서적 측면이 무시된 채, 단편적인 감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는 회랍의 고전이론과 근대 경험론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른다. 즉 경험은 주로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견해, 그리고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다시 살려낸다. 그러나 플라톤적 고전이론 그대로가 아니라, 행하는 것에 사고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검증된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론을 변형시킨다. 그리하여 듀이의 경험은 회랍식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것으로 된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멀리 있는 관념상의 정신능력이 아니라, 활동이 풍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자원을 가리킨다.**

68) DE, p.115.

69) 백중빈, 〈인내천의 體와 用〉, 《신인간》 29, 1928.11. (천도교 교육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혜안, 2001, 411-426쪽’ 참고).

통일한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경험까지 통일하여 사람성 자연⁷⁰⁾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위의 말은 듀이와 상통하는 맥락이 있다.⁷¹⁾ 그러나 듀이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가 끊임없이 행동에 가해지는 과학적 방법과 검증작업의 맥락은 분명 아니다.

3. 종교·예술교육

방정환에게 있어 아동은 한울님 자체이다. 그의 종교교육은 아동 모두가 자신의 한울님을 자연과 예술 속에서 보존해 가는 것에 목적을 둔다. 동화나 그림, 동요와 같은 아동예술을 통해 한울님과 같은 영원한 아동성이 아동의 마음속에 호소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자연은 심신의 성장을 가져오고 예술경험은 특히 정신적 성장을 가져온다. 그리고 생활과 결합된 실제경험 모두가 자신의 한울님을 성장시키고 변화를 가한다.

한편 듀이는 근대 이전의 초자연적 ‘종교’와 구분하여 인간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종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경험의 종교적 특성은 생활 속에서의 보다 나은 판단과 조건이 생산되는 효율성에 있다. 종교적 경험을 만드는 것은 자아와 세계 우주, 양자의 관련 속에서 경험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모든 자연적 행동은 종교적 특성을 포함하며, 종교는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사회적 문화 조건과 관련된다.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인류학, 심리학, 문학비평, 등의 커다란 진보는 종교가 우주적·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믿음을 버려 온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진리에 다가서는 확실한 길은 관찰, 실험, 기록 그리고 통제된 반영에 있다. 듀이는 그의 저서 『공동 신앙(Common Faith)』에서도 주장했듯이 공동신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 생활원리에 일치하는 인도주의적 종교라고 규정했다.⁷²⁾ 박봉목도 듀이의 종교적 경험은 생활에 대한 사회적, 지적 가치의 인식이라 말한다. 듀이의 종교는 교리나 의식이 아니고, 세계에 대한 해석, 사회적·도덕적 생활의 반영이다. 따라서 그의 종교적 경험은 현대의 민주주의나 과학과도 일치한다.⁷³⁾

70) 천도교에서는 ‘인내천’을 ‘사람성 자연’이라고도 표현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돈화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혜정, 위의 책, 322-337쪽 참조).

71) 박철홍은 듀이가 말하는 경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행동과 지적 사고가 일관되게 통합되는 경험의 통합성. 둘째, 지금까지의 경험 전부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의 경험의 총체성. 셋째, 경험 과정은 탐구자와 탐구대상을 모두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경험의 교변성(창조성)이다.(박철홍·윤영순, 〈교과의 경험화에 함의된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철학》 31, 교육철학회, 2004.2, 29쪽.)

72) 정길수, 〈듀이의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7-2, 한국교육학회, 1979.9, 95-100쪽.

그러므로 과학적, 사회적 지성에 의하여 개인의 전인격을 통일하는 것이 그의 종교적 교육이다.⁷⁴⁾

듀이에게 있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미 무한한 뜻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체계 중에 인간의 노력으로 개변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은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연속하고 있다. 이렇게 무한과의 연결을 포괄하는 의식이 곧 듀이에게 있어 ‘理想(Ideal)’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의식은 이지적으로 언표될 수 없지만, 그것을 기꺼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상을 정서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감상과 암시를 일깨우고, 그것을 높이고 굳게 해서, 마침내 우리의 생활조직에까지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듀이에게 있어 예술과 종교의 임무다.⁷⁵⁾

듀이에게 있어 神이란 행동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목적과 이상의 통합으로 표현된다.⁷⁶⁾ 이상의 힘은 초자연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동으로 자극한다. 神은 이상과 실제 사이의 행동적 관련에서 말해 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상과 실제의 일치를 뜻하며, 사고와 행동 속에서 작용하는 일관된 통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듀이의 종교적 경험은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실제 경험에서 일어나는 자연주의 입장, 둘째, 사회적·역사적 문화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공동성, 셋째, 이상에 대한 감상과 결부된 지속적인 통일성에 특징을 둘 수 있다.⁷⁷⁾

또한 듀이의 예술경험 역시 종교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상경험과 자연에 기초한다. 인간 경험의 역사는 예술 발달의 역사이고, 과학의 진보이기도 하다. 종교적이고 제례적이며 시적인 예술 속에서 출현한 과학의 역사 역시 예술과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예술이 어떤 행동이나 그 결과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대상과도 관련이 없게 된다.⁷⁸⁾ 경험은 인간 자신의 감각 내에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대상과의 활발한 교섭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은 유기체의 완성과 세상 내에서의 성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술이다. 흔히 일상생활과 예술창작의 즐거움 사이에는 어떤 대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데,⁷⁹⁾

73) 박봉목, 〈존듀이의 종교론〉, 존듀이 30주년 기념논문집, 앞의 책, 125-131쪽.

(듀이는 제임스의 개인주의가 구 민주주의를 반영하였던 것처럼 산업주의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동정신을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듀이의 철학은 산업주의와 연결되어 있다.-스토 퍼슨스, 앞의 책, 569쪽).

74) 임한영, 《듀이의 교육사상의 연구》, 서울:민중서관, 1968, 166쪽.

75) 존듀이, 신일철 역, 《인간성과 행위》, 서울:삼성출판사, 1982, 289-301쪽.

76)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9(1933-1934),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6, p.xvi.(Introduction by Milton R. Konvitz)

77) 위의 책, pp.xiii-xxiv.

78)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1925),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pp.290-291.

79) John Dewey,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0(1934),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심미적 경험의 적(敵)은 실제적 혹은 지적 경험이 아니라 관습과 지적 절차에 항복하는 지루한 경험들이다. 엄격한 절제, 강요된 복종, 긴장감, 산만함, 비밀관성, 목적없는 탐닉 등은 경험의 통일성, 즉 예술과 반대가 된다. 듀이에게 있어 예술적 특성이란 경험이 완전함과 감정적인 것으로서의 통일성을 지향하여 발전해 가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예술에 의해서 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표현된다.⁸⁰⁾

4. 아동의 사회화 교육과 사회창조

방정환에게 있어 사회화 교육은 자가교습의 실제교육과 같이 실사회와 유리되지 않고⁸¹⁾ 또한 자신이 몸담겨져 있는 민족과 사회에 대한 조선혼 공부에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에게 있어 조선공부란 조선을 공부하여 조선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의 삶을 보다 크게 만들고 참된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성장은 곧 새 세상의 창조로 이어지는 것인데 아동이 갖는 한울님의 진실성에서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조선을 위한 주체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울님 자체는 사회와 자연, 세계가 모두 포함된 전일체의 개념을 전제한다.

듀이에게 있어 개인 역시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다. 정보와 전문적인 지적 기능의 습득은 아동의 사회적 성향을 형성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경험의 공동소유를 가져오며,⁸²⁾ 동시에 쌍방의 성향에 수정을 가한다.

Press, 1987, pp.25, 31-33.

80) 위의 책, pp.45-49.

81) 아동의 흥미가 실사회나 실생활에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방정환의 입장은 듀이와 상통한다.

82) DE, p.9. (듀이의 〈나의 교육신조〉 1조에서는 “교육을 받는 개인은 사회적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의 유기적인 통합체이다. 아동에서 사회적 요인을 빼어 버리면 남는 것은 추상적 존재뿐이다. 사회에서 개인적 요인을 빼어 버리면 남는 것은 무기력하고 생명 없는 덩어리뿐이다”라고 말했다. 듀이에게는 분명 인간 공동성의 사회적 존재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개인의 간접적 통제를 가하는 작용을 한다고 듀이는 말한다. 그러나 그 경험의 공동성 자체가 보편성과 탈이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상학에서 말하는 판단중지나 불교와 같은 수양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공동경험은 물들여진 채로 개조될 뿐 정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지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물론 듀이에게는 현상학적 면모가 존재한다. 최근의 Margolis는 프래그머티즘과 Merleau-Ponty의 현상학과의 접근을 시도한다. 양자 모두 이원론과 논증적 힘을 옹호하는 데카르트 철학에 개념적 난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양자를 연관시킨다. Merleau-Ponty가 초월적 경험(선형성)과 자연적 경험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았고, 초월적 주체는 곧 상호주체이며, 초월성은 역사 안에서 계승된다는 점을 말한 점에서 자연주의의 프래그머티즘과 일치된다. 따라서 Merleau-Ponty의 관점에 있어서 현상학 없는 자연주의는 맹목이고 자연주의 없는 현상학은 공허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또한 더 나아가 그는 (1) 회의주의의 위협의 해결, (2) 인식적 특권의 모든 형식의 거부 (3) 인식적 능력의 역사적 지속을 강조하는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래그머티즘과 현상학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양자

듀이에게 있어 사회의 진보는 아동의 경험에 의한 습관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⁸³⁾ 그러므로 교육은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조정하는 일이며, 이 사회적 의식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확실한 사회재건의 방법이 된다.⁸⁴⁾ 듀이가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서 공동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개인의 다양한 능력들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는 생산양식의 발달과 과학의 힘으로 자연에너지를 정복한 결과로서 나타난 상업, 교통, 이주, 통신의 발달로 가능하다.⁸⁵⁾ 사회진보는 결국 과학에 의존한다.⁸⁶⁾

이렇게 볼 때 방정환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는 지상천국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가 한울의 전일성으로 개벽되어 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듀이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 경험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 무한히 갱신·확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다.

V. 결 론

구한말 서세동점의 격동기 속에서 조선이 취한 사상적 대응은 크게 위정척사, 개화, 동학으로 구분 짓는다. 이 가운데 동학의 가장 큰 사상적 의의는 민중성과 東道の 변혁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실패함에 따라 손병희는 갑진개화운동과 삼전론을 개진하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1919년에는 3.1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천도교는 두 차례의 분규사태를 맞으면서 사회주의자와 연합한 〈사회운동〉과 천도교 자체의 〈문화운동〉, 두

모두가 심신의 분리가 아닌 심신일원적 감각에 집중하고 있고, 듀이와 메를로 뽁띠의 공식, 즉, 불확정적 상황(the indeterminate situation)은 주관과 객관 사이의 구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Margolis는 “듀이와 메를로 뽁띠의 유사성이 분명 다음 세기의 확신할 만한 철학이 될 것”이라 말한다. (Joseph Margolis, Dewey in Dialogue with Continental Philosophy, Edited by Larry A. Hickman, *Reading Dewey: Interpretations for a Postmodern Gener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8, pp.241-250) 그러나 문제는 듀이즘이 그 회의주의의 극복으로서 과학적 방법과 경험의 객관화를 적용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는 현상학이 예술과 서사적 방법에 의해 진리의 장소를 구성해 가는 것과는 분명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83) DE, pp.78-79.

84) 존 듀이, 〈나의 교육신조〉, 5조.

85) DE, p.87.

86) DE, p.120.

노선을 택하게 된다. 특히 문화운동은 6개 부문에서 펼쳐 나갔는데 그 가운데 방정환과 김기전의 어린이 운동은 농민운동(朝鮮農民社)과 쌍벽을 이룬다.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은 암울한 식민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상적 뿌리에 기초하여 전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를 이룩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는 방정환의 자생적 토대 속에서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동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파 방정환의 교육사상은 분명 한국적 근대교육의 기점으로서 향후 교육의 주춧돌이 됨을 인식해야 하고 이성과 합리주의에 따른 실물교육과 과학중시의 서구 논리와 어떻게 교차점을 이루어 가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판 계몽주의라 할 수 있는 듀이 사상의 장점이 우리의 아동교육 가운데 분명 수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습관의 개조나 과학적 방법에만 전념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성찰도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과학의 화려함은 듀이적 사유가 국민성에 기초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더불어 행복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참고문헌》

《개벽》, 《별건곤》, 《신여성》, 《어린이》, 《학생》, 《천도교회월보》, 《동아일보》

강영혜 외,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철학의 최근 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1994
김재영, 〈존 듀이의 종교경험이론〉, 《대동철학》 1, 대동철학회, 1998.10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박철홍, 〈知와 德은 하나인가? : 듀이의 종교적 경험에 비추어 본 學習의 性格과 知德의 관계〉, 《道德教育研究》 6, 1994.12

박철홍·윤영순, 〈교과의 경험화에 함의된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철학》 31, 교육철학회, 2004.2

방정환, 《방정환아동문학선》, 기와집문고11, 서울:앞선책, 1996

성봉덕,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념〉, 《신인간》 367, 1979.5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서울:학지사, 1999

염희경, 〈소파 방정환과 사회주의〉, 《아침햇살》, 2000, 봄호

이명현 외,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서울:철학과 현실사, 1998

이숙중,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교육과학사, 1996

54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 아동문학의 제문제》, 창비신서17, 창작과 비평사, 1977
- 이윤미, 〈소파를 통하여 보는 교육사 : 소파 방정환 교육론의 교육사적 의미〉, 《교육비평》 12, 2003 여름호
- 임한영, 《듀윌 교육사상의 연구》, 서울:민중서관, 1968.
- 잔니 마티모, 박상진 역, 《근대성의 종말》, 서울: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 정길수, 〈듀이의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7-2, 한국교육학회, 1979.9
- 정덕희, 듀이 教育哲學에 관한 解釋學的 理解,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혜안, 2001
- 존듀이 30주년 기념논문집, 《존 듀윌과 프라그마티즘》, 서울:삼일당, 1982
- 천도교청년당본부, 《천도교청년당소사》, 1935
- 스토 퍼슨스, 이형대 역, 《미국지성사》, 서울:신서원, 1999
- 존듀이, 신일철 역, 《인간성과 행위》, 서울:삼성출판사, 1982
- 梅根悟, 심임섭 역, 《근대교육사상비판》, 서울:남녘, 1988
-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루원과 소세키》, 서울:소명출판, 2000
- 中村 修, 〈方定煥 研究 序說: 東京時代を 中心に〉, 東京: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靑丘學術論集》 14, 1999.3
- Edited by John J. Mcdermott, e, *The Philosophy of John Dewey*, vol.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3
- Edited by David Sidorsky, *John Dewey: The Essential Writings*, Harper Torchbooks, New York, 1977
- Edited by Larry A. Hickman, *Reading Dewey: Interpretations for a Postmodern Gener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8
-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The Free Press, New York, 1944
- (존듀이,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87)
- _____, *The Later Works*, 1925-1953, Vol.1(1925),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 _____, Vol.9(1933-1934),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Vol.10(1934),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7

원고접수: 5월 4일 1차심사: 5월 17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동국대학교 강사
 - ② 관심영역: 한국교육사상
 - ③ 주요논저: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 〈미군점령기의 사회와 교육〉,
 〈동학과 불교사상〉
 - ④ E-mail: jhjnim@hanmail.net
-

**The Educational Thought of Religion
of Bang, Jung-Hwan
- An essay in Dialogue with John Dewey' Philosophy -**

Jung, Hye-Jung
(Dongguk University)

《Abstract》

Bang, Jung-Hwan is representative, educational thinker of Korea in modern ages. He criticized confucian education and asserts the emancipation of children. His main theory of education is based on Chundokyo(天道教). That is the natural education for the growth of mind and body, and the artistic education for the spirit, the practical education is connected interest, and education of spirit of Korea. For the sake of the growth in mind and body He emphasizes the nature. The nature is Hanulnim. Children are in accord with nature and them self. By the experience of integration, children's growth is possible. Also, artistic education is able to express the experience of integration intuitively. Therefore He emphasized an juvenile story, children's song, and a children picture as the art of children. The art of children gives form to the inner world of them and makes the way of experience of truth like the nature. On the other hand to him, Education is to teach the practical knowledge that is needful to live for them and is connected with practical life of them. Lastly the aim of his education is to construction of new world. The new world is to go back to the Wholeness by everybody. So he introduced the Choson's history and culture, great man, and so forth.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mparative Bang, Jung-Hwan' thought with John Dewey. First comparison is about to "self". To Bang, Jung-Hwan, self is a by-product of cultivating inner Hanulnim. Also to Dewey, self is to form by choice of action continuously. The active concern about things in a kind and quantity express the self of quality. Second, the problem is about to "nature". To Bang, Jung-Hwan the growth of children is formed by the emotion of unity in the nature. So he said that "the nature is not an instrument to reorganize the experience but one body with human being to hold the wholeness in common." Third, religion of

education in Bang, Jung-Hwan is based on the Suunism. The aim of religious education is to cultivate the own divine. On the other hand, in John Dewey, it is to integrate the personal character wholly by the scientific and social intelligence.

Key words: Bang, Jung-Hwan, Chundokyo(天道教), nature, Hanulnim, experience of integration, art of children, John Dewey